

메이크업의 변천에 관한 연구

- 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

허연정·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과거의 메이크업은 패션의 한 일부분으로 여겼을 뿐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지만, 현대에 와서 다양한 대중매체와 기술의 발달로 메이크업이 보편화되어 의복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액세서리와 함께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시되는 토탈 코디네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피부보호가 요구됨에 따라 단순히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메이크업 제품보다는 보다 특별한 기능을 가진 메이크업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메이크업 제품은 연령과 사용 용도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현대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메이크업은 단순한 개인적 美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가치를 반영하며 외적인 신체와 내적인 존재와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생활문화로서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면서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탈 코디네이션에서 다른 요소들에 비해 보다 자유로운 연출이 가능한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패션 이미지 분류에 따른 메이크업 경향을 고찰하여 나타난 주된 이미지에 대한 메이크업의 표현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984년 5월에 국내에 최초로 창간된 국내 패션 전문 잡지인 멋과 ELLE, Vogue, 패션 투데이 잡지를 사용하였으며 1990년대로 제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패션 잡지에 나타난 메이크업 제품의 광고 사진과 패션모델들의 메이크업을 시대별로 제시하였고, 다음으로 토탈 코디네이션을 위한 패션 이미지에 따른 메이크업 이미지를 분류하였다. 또한 메이크업의 유형을 고찰하여 시대에 따라 표현방법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메이크업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84년~85년 까지는 메이크업 제품의 광고 메이크업에서는 계절에 따라 포인트 메이크업의 색상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그 밖의 다른 광고 메이크업이나 패션모델의 메이크업에서는 계절에 따른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인 메이크업 분위기는 진한 눈썹에 3~4색을 사용한 아이섀도우, 선명한 색상의 립스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86~87년에는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게임의 영향으로 스포티 & 캐주얼 룩이 패션스타일로 등장하고 교복 자율화 세대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메이크업을 하는 연령층이 낮아진 걸 알 수 있다. 대학 신입생을 위한 캠퍼스 웨어와 메이크업이 제안되기 시작하면서 메이크업은 젊은 층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로 인해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밝고 깨끗한 메이크업을 나타났다. 계절에 따른 메이크업 제안이나 T. P. O에 따른 다양한 메이크업 제안도 나타나면서 메이크업이 패션에서 보다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다.

88~89년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여성미를 강조한 메이크업이 나타나면서 파스텔 색상이 주류를 이루었고, 가을에는 다양한 색상의 화운데이션으로 색조메이크업 보다는 피부표현을 중요시하는 메이크업제안과 함께 내츄럴이 강조되었다.

1990~92년 까지는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안정감 있는 색상과 부드러운 느낌의 파스텔 계열과

* Corresponding author: lilika70338@hotmail.com

에콜로지의 신선힘을 찾아볼 수 있는 자연적 이미지의 색상들이 부각되었으며, 93년에는 핑크계열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와인색상으로 여성적이면서도 화려한 메이크업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94년에는 동양 이미지의 민속적이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95년에는 진의 유행으로 메이크업에서는 다채로운 원색이 유행하였다. 96년에는 황금색으로 눈 화장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이 나타났다. 97년에는 60년대의 전통적, 요염한 이미지를 현대적이고 자연스럽게 재해석하여 블랙 색상이 메이크업에 나타났으며, 1990년대 후반이 되면서 패션의 경향은 세기말적인 영향을 받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금속문화의 절정 등이 반영되어 회색을 비롯한 어두운 색상들이 주조로 이루어졌으며 미니멀리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60년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메이크업에 있어서는 모방이 아닌 개성 존중 시대임을 인식해 메이크업 연출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내추럴한 투명한 피부표현에 원포인트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

메이크업은 단순히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수단에서 나아가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 수단으로서 패션, 헤어스타일, 액세서리와 함께 토탈 코디네이션의 중요한 한 분야가 되었다. 그러므로 패션에 있어서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이크업도 기존의 메이크업 방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메이크업을 찾아야 하겠다. 패션이 메이크업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추구하는 이미지에는 크게 로맨틱 이미지(Romantic Image), 내추럴 이미지(Natural Image), 클래식 이미지(Classic Image), 에스닉 이미지(Ethnic Image), 사이버-테크노(Cyber-Thechno Image), 그리고 푸어룩 이미지(Poor look Image)로 구분하였다. 메이크업의 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대중매체의 발달

사람들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소비를 자극받게 되었고, 특히 패션 잡지와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의 증가는 이상적인 미를 현실생활에 반영하게 되었다.

2. 화장품 산업의 발달

화장품 산업의 발전으로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면서 메이크업은 본격적으로 패션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되었다.

3. 토탈 패션 개념의 발달

메이크업은 패션,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등 토탈 패션을 이루는 요소들과 함께 조화된 이미지를 형성하며 전개되어왔으며, 패션과 함께 각 시대에 따른 미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의 한 부분으로만 인식되었던 메이크업이 오늘날 토탈 코디네이션의 중요한 한 분야로 정착했는지를 국내의 메이크업 변천을 통해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토탈 코디네이션을 위한 메이크업은 생활문화산업이자 21세기의 중요한 산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세계화, 다국적화를 지향하는 글로벌마켓에서 토탈 코디네이션에 관련된 산업은 무한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주요산업이 되었으며, 또한 토탈 코디네이션이 추구하는 전체 이미지와 메이크업에 의해 창출되는 이미지간의 관련성은 보다 효과적인 토탈 코디네이션의 연출에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